



[지금은, 연애중]

연애소녀를 만날다 생활도서관 시니어매거진 영화제작위원회 플린그람찾기

[지금은, 연애중]

번데소녀하늘을날다 생활도서관 시니어매거진 연희여성위원회 돌진그림찾기

제 2회 자치단위연합회 문화제를 맞이하며

말씀합니다. 혹은 오랜만입니다. 2007년 제 1회 자치단위연합회 문화제로 처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난 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1회 문화제 후 5개의 자치단위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가끔 갑갑한 서로어로 마주치기도 하면서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 새 학기의 문을 여는 3월을 맞아 힘차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 제 2회 자치단위연합회 문화제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회 문화제의 주제는 '노동' 이었는데요. 이번 2회 때에는 무엇인가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 일지라도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목소리를 도배내기 위해서, '연애' 라는 익숙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로 5개 자치단위들의 이야기를 모아내 보았습니다. '연애' 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수 백 가지이지만 각 단위들의 특색을 담은 소위 '편 짧은' 소주제들로 각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인그림작가의 '갈매국의 연애, 연애국의 갈매', 연애소녀야슬을달라의 '에스미언의 연애일대기', 생활도서관의 '뭉 속에 들어나는 연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낸 연애' 에 대해서 풀어낸 여성위원회, '연애 속에 드러나는 권력 구조' 를 명화로 풀어낸 시애틀아메리칸.

이렇게 우리는 "연애로 뭉쳤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하나의 주제로 뭉치는 길목에 모여 있는 저의 5개 자치단위들의 특별한 이야기.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학생문화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연애중) 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차례

여는 글		1
변태소녀하늘을날다		3
생활도서관		21
시네마페스트		29
이화여성위원회		39
틀린그림찾기		51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싱거운 말이지만 가끔은 낯설게 느낄 때가 있는 법,
학기가 시작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모놀로 피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앉아
바보게 돌아다니는 문밖의 발소리들여가 인사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2008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문날다의 시작은 자지단위 문화제로 자
전하고 엮어보려고 합니다. 2007년 노동이하는 주제로 다가갔던 자지단위들이이변에는 좀 더 어
류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연애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참 로맨틱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간단하지 않은, 복잡하고 어렵기까지 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을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굳은 쓰고 있는 필자는 상실의 시대-를 겪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연애하는 소리만 들어도 무하
는지라 심리적 굳은 줄 용기가 나지 않는군요.
허니 그래도 할 말을 해야하는 법. 자판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푹푹 내쉬며 입을 열어봅니다.

'연애' 라는 것에 대해서 레즈비언이 무슨말을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굳은 쓰고 있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왜 우리가 굳이 연애에 대해서 굳은 써야할까도
궁금하구요. 아마도 우리의 연애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답변을 하도록하
야 할 것 같다는 약간의 의무감스러운 자지극리한 느낌도 있지 않아 인구요.

변태의 굳은 읽어보시기 전에 한번쯤 먼저 생각해본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애
는 무엇인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의 가슴 찡한 이야기
들을 하면서 연애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본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변태소녀들도
마찬가지일꺼구요. 그래서 변태소녀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연애는 무엇일까? 하고
실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할애던 용지에 적당히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내려 가야하는 것 말
고 푹 파놓고 편하게 사람들 볼잡고 이것저것 이야기해보고 실은 마음도 공통갈구요.

하지만 일단 시기가 시기인만큼, 굳이나마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어갈수있다는것에 만족해야지요.
아, 사실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이가 돌었군요. II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변태이 연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도록
하 할 것 같네요. 일단 간단하게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남, 연애, 분해, 동거
그리고 이별 각각의 소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지는 여러분들이 굳은 곰곰이 읽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레즈비언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아가고, 또 그 속에서 어
떤 힘든 일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에 대한 변태소녀들의 생각 동등을 살짝 엿볼 수 있
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성애자의 '동'자도 아직은 꺼내기 힘든 사회에서 어찌된 내가
나는 어지를 사랑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는 판에 우리들의 연애는 가끔, 혹은 자주 거친 파
도에 휩쓸리듯 거칠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사랑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두근거리는 사랑을 하고
가슴 아픈 이별을 하는 것은 이성애자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정실정 어느 굳은 이만 남겨드리시고 다음편으로 넘어가서서 변태소녀들의 순간순
간한 변태소리를 들어보시요! (후궁가 저희에게 인터뷰를 청하면서 변태소녀하늘문날다를 변태소리
하늘문날다라고 보냈지 뭘니까.우스갯소리며요) 여튼 저희들의 작지만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목소리들여 귀를 기울여주세요.)

마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2008년에도 연애문이 그득그득 하시길, 예쁜 사랑 많이 하시길!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Sea, 시작하는 글 글.

연애소녀들의 이야기 part. 1. '결혼'의 시작

캠-부치,

강요된 이성애적 역할 분담? or 단순한 개인적 취향 차이?

Sea : 우리 안에 '부치 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누어도 상관없다, 나누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은 서로 그러한 생각에 관해서 얘기 해 보자. 음, 나는 내가 저번 학기 때 논문을 이것에 관해 썼는데 -변남 사람들 인터뷰도 있었고- 몇몇 사람은 '나누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했어. 나도 그 주장에 동의해. 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성향을 쓰잖아, 나도 그런 데서는 부치만 골라서 봐. 하지만 이런 식의 캠-부치 구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성애 중심사회에서의 틀을 싫어하면서 '왜 레즈비언에서까지 구분을 해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

박하 : 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흔히 말하는 중성적인 전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분이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것에 얽매일 때가 있어. 처음 내가 여자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아직 레즈비언 문화를 접하지 못했을 때라서 둘 다 여성스러운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때 머리가 짧게 자르고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스스로 강박관념이 생겼어. 이성애 커플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KAZE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굳이 내 파트너가 그렇게 바꾸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나 혼자 한 명은 여성스럽고 한 명은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Sea : 난 캠-부치 나누는 것이 좋아.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꼭 물어보는 것 같아. 내 전애인도 머리 굉장히 짧은 딱 봐도 부치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난 개 사귄 때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개도 나한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 그런 사람이 좋다고, 그리고 나도 개가 머리 기르는 것은 싫고, 난 틀에 박힌 행동을 하면서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생각했어.

cuty : 내가 볼 때에도 그러한 캠-부치 구별이 이성애 중심 사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성애 커플들도 남자가 귀엽고 여자가 와이드 한 커플이 많잖아.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커플이 있고, 단순히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KAZE : 그건 성별 이분법적인 생각 같아. 캠 부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캠은 여성적, 부치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치로 : 캠 처음에 부치 캠을 접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침대 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릴 : 그게 내적관계에서 동의가 되면 괜찮은데,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KAZE : 인터넷에서 보면 다름 같은 것을 찍잖아 - '옷 안 벗는 부치.' 라던가 애인이 옷을 안 벗는다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cuty : 내 애인도 그랬었대. 그래서 난 부치니까 당연히 벗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부치라고 옷을 안 벗고, 벗기려고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 게다가 개는 스트레이트만 만나서 그게 학습이 된 것 같아. 개네들은 애를 여자의 모습을 한 남자로 대한 것 같더라고. 만약 레즈비언끼리만 있는 사회였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성애자들과 계속 만나고 자꾸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니까 강요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 우리는 사회에서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받아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념이 존재하는 것 같아.

치로 : 흠.. 그래, 뭐 처음에는 캠 부치를 보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 사람 성격을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

박하 :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난 예쁜 남자가 좋아. 그런 식으로 그냥 사람의 취향인 것 같아.

수라 : 난 그냥 굳이 나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별로 의식하지 않았었는데 처음 만날 때, 구두를 신어야하나 운동화를 신어야 하나 고민을 했었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들 무릎을 탁 치며 크크. 맞아 맞아 ㅋㅋㅋ)

KAZE : 일상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게 은근히 고민이 될 때도 있지.

cuty : 나도 그런 건 고민하는 것 같아. 난 나 같은 부치 스타일의(?)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

Sea : 나도 애인 만날 때는 예쁘게 하고 나가는데, 그런 게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아.

KAZE : 응, 애인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꾸미고 나가게 돼. 그게 나는 그냥 단순히 예쁘게 보이고 싶을 뿐이지.

수라 : 난 둘 다 상관없고 그런 거 고민하는 것도 이젠 즐거운 것 같아.

릴 : 나는 화장도 꼭 하고 다니고 예쁜 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완전 펌은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Sea : 근데 이러쿵저러쿵해도 난부치 펌 나누는 것이 강박관념도 없고 불쾌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KAZE : 난 과거에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유해해서 괜찮아지긴 했어, 그래도 너 '펌 같아', 혹은 '부치 같아' 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기대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전히 신경이 쓰여.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나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나에게서는 부치 같은 면모 펌 같은 면모가 다 있어.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은 여기까지만!

이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지만 지면상 여기까지만 실겠습니다.

연애소녀들의 수다 끝.

연애소녀들의 이야기 part. 지금은 '결혼'

레즈비언도 뽐뽐하게 인애를 하고 동거를 하며 밤낮으로 섹스도

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성애자의 그것과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당당하게 애인임을 말할 수 없고 법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등록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행복하다.

스트레이트 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애인과 편지왕래를 하는가? 글쎄, 레즈비언 커플들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이 시대에도 끈질기게 편지를 쓰는 것 같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엘레노어 루즈벨트(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와 레이나 허록 커플이 있다. 그녀들의 편지 3천여 개가 하이드파크 프랭클린 루즈벨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엘레노어가 허록에게 보낸 편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내사랑 혁, 한 가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내게 있어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과 있기보다는 자라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1933.3.10' '난 오늘밤 당신 곁에 누워서 당신을 알고 싶군요. 1934.9.1' 일상적인 연애편지지만, 그녀들은 쓰고 또 쓴다.

그럼 낙천적이기 그지없는 스물일곱 직장인과 스물둘 대학생 커플의 편지를 공개한다. 이것은 연애담 혹은 동거담일 수 있으며 결혼제도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다.

은사가 이젠 이 주신 정동진역을 읽었습니다. 김영남 시인의 정동진역- 오래된 시일 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색해보니 1998년에 출판된 작품이네요. 제가 갔던 정동진은 관광지로 정악원 후의 정동진입니다. 이런 들들하고 소박한 문류기가 아니었죠.

여행을 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군요. 공공 전 의림지에서 잉어를 낚던 내가 아득합니다. 함께 밥기사를 하고 등배로 가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08.3.1.토. 수라.

은사가 이를 기다리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 기묘한 편지들과 오심은 늘 애증만은 아닌 것 같고요. 냉감고 속의 애오막과 버섯이 일경 쓰입니다. 사실 미미 집에 가서 카이락을 넣는 순두부찌개를 해놓고 기다리고 싶어요. 내일부터는 8시 술잔이니 카이락 먹기는 힘들겠지요. 아, 오랜만에 거리를 마시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은사가 이는 견해를 오실까요.

2008.3.2.일. 수라.

오늘은 3월3일 월요일. 개강입니다. 어스배 서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40일 정도 지났네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은사자가 '침대를 살라' 라고 하셨을 때 '싱글침대에서 둘이 자는 건 이제 지났어요. 수아가 이들도 뭘날 온다 열는 걸!' 하신다와 순간 긴장했습니다. 새 침대를 하나 마련할까요. (하지만 전 비적거리는 지금 침대도 싶지 않습니다.)

상판에 해가 나네요. 저녁에도 날씨가 좋으면 최근길에 모래내시장에 들어 월남감 재료를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남감과 더불어, 금주를 실천하는 이번주의 테마는 동남아로군요!

2008.3.3.월. 수아.

출근머스의 피어러길 것만 같은 이대부고 아이들의 압박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재학했음을 매일 아침 몸으로 느끼게 되는군요. 이화여대도 매머드급 학교이지만 이대부고와 이대부중의 성원도 일말적인 학교보다 많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아. 그렇다고 서로 다른 버스를 타고 가는 건 싫습니다.

이제 곧 최근까지는 은사자 시. 오늘은 어제 못 갈 시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르티와 양상수와 맛살과 말기- 또 두엇을 살까요. 물나들? 오랜만의 시장, 기대됩니다.

2008.3.4.화. 수아.

오전 7시48분. 우사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시장에 가고, 은사자 이에게 채소를 열어주시고, 어는 버섯을 데시고, 월남감을 먹었습니다! 나날이 살아가기 튀어지게 먹는군요. 채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아침밥도 매일 먹고 있고요.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같이 재빨리고 있나봐요.

이제 곧 코모가 되실 은사자 시. 초가가 태어나면 애기수라이를 며 보로 싶어 하실 땐에 조금 걱정입니다. 기우인가요? 얼마1과 얼마2가 애기수라를 맞을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립시다.

밤금 은사자 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좋네요. 오늘저녁엔 만나지 못하지만, 구름이 아깝습니다. 은사자의 학늘은 하얀가요?

2008.3.5.수. 수아.

수아, 연애이야기 끝.

연애소녀마음의 이야기 part2. 지금은 '연애'

사례 1

(이성애자) A씨는 그의 여자친구와의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그녀와 사귀기 1년째 되는 날.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 그녀가 나타나자 그는 그녀를 꼭 안아준다. 거들먹을 입은 둘은 서로의 허리를 감고 걷는다. 예약한 카페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고, 살짝 취한 그녀는 그에게 기대온다.

사례 2

에스미언 A씨는 애인의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그녀와 사귀기 1년째 되는 날이지만 A씨는 아직 아무에게도 서명אות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녀가 나타나자 A씨는 그녀를 꼭 안으며 하지만 그녀가 열은 몸을 빼낸다. 학교 앞이야. 초입해.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큰일이야. 대실에 둘은 손을 잡고 걷는다. 한국에서 여자가 이 손잡고 다니는 것은 그나마 이상하게 쳐다보기 싫으니 야행이야. 라고 A씨는 생각한다. 예약한 카페 입구에 들어가 A씨는 놀란다. 이런 벨장. 서만치에 좌 섹스가 보인다. 둘은 최대한 친구인 척 마주앉아 행여 누가 들음세아 소리죽여 이야기를 나눈다. 준비한 꽃다발을 주려는 그녀의 선택은 무산되었다.

언젠가 인터뷰를 하다가 '레즈비언은 연애할 때 뭐해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물론, 이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데이트하는 모습은 비슷비슷하다. 만나서 밥먹고 영화보고 커피마시고 놀러다니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레즈비언에게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레즈비언으로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레즈비언 커플은

- 1)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동성애자라고 명기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라고 간주된다. 따라서 사실 관호 안의 단어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 2) 흔히 이성애자들은 애인을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부르곤 한다. 애인을 왜 굳이 '친구'라고 표현하나. 하는 의문은 접어두고라도, 이 단어의 사용이 동성애자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지 아시는지. 개인적으로는, 필자에게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묻는 질문을 대할 때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곤 한다.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스스로 검열하고 소문을 두려워해야 한다.

레즈비언 바가 있잖아? 라고 되묻는 당신. 하지만 이는 지역적 제한 (레즈비언 바라고 해봤자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가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서울 홍대 주변에 몰려있다), 경제적 제한 (술집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레즈비언들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술집에서 돈을 쓸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이의 제한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 청소년 레즈비언은 어쩔 것인가, 그리고 20~30대 중심인 술집 문화에서 소외되는 중년·노년의 레즈비언은 어쩔 것인가!) 등으로 모든 레즈비언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호기심 혹은 악의에 찬 이성애자들이나 '레즈비언 클럽 잠입 취재' 운운하는 황색 언론에 의해 위협받기 십상이다. 그나마 요즘 시대에는 공권력에 의한 동성애자 클럽 습격과 단속은 없어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아야 할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레즈는 레즈바에 가면 되잖아'라는 생각 자체가, 일상 속에서 자기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한 그녀들의 소외와 불편함을 은폐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이성애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³⁾ 포옹하는, 연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왜 동성애 커플에게는 레즈비언 바, 게이 바라는 틀 안에만 갇혀야 하는가.

거리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보듬고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여성과 여성, 혹은 남성과 남성이라면 어떨까.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물리적인 폭력⁴⁾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자기만의 방을 가졌다고 해도 그 방은 온전히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공간이 될 수 없다. 혹여 레즈비언 커플이 둘만의 집에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 갑자기 부모님이 오신다거나 커밍아웃하지 않은 지인의 방문은 대형 사건이 된다. 하다못해 도시가스 검침이나 가전제품의 방문수리만 와도 긴장이 된다 ... 그들이 가까이 우리를 이성애자로 간주하도록 공간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⁵⁾

3) 실제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들끼리 숨어서 놀아라. 대신 내 눈에만 띄지 마라'는 동성애 관련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뜨면 가장 흔히 달리는 악플 중의 하나이다.

4) 일례로 필자는 게이인 친구에게 '애인과 길거리에서 손잡는 것이 기념일 이벤트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hate crime)가 많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 폭행이나 강간·살해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일상 속의 이성애중심주의, 일상 속의 호모포비아는 동성애 커플을 공적으로 차별함⁶⁾을 넘어서 사적으로도 그들을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 엄연히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없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채근하는 부모, (이성)연애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친구들,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을 짝짓기 바쁜 tv프로그램 속에서 나-그녀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는 항상 비가시화되고, 타자화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나 일수 있는 공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 놓고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나도 길바닥에서 동성'연애'하고 싶다."⁸⁾

박기, 연애이야기 등.

6)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활동가 한재운씨가 언니네(www.unninet.co.kr)에 게재한 칼럼을 인용했다.

7)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애 커플은 서로 공식적인 배우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기지도 못하고, 여러 조세 혜택도 주어지지 못하고, 아이를 입양할 수도 없다.

8) (수식어 없는 성소수자) 공동체 '피다'는 2007년 12월 25일 밤 인사동 거리에서 위 구호를 외치며 파트너와 기습 키스 퍼포먼스를 했다.

연애소녀들의 이야기 part 3. 불꽃

같은 반 친구이자 나의 애인인 S, 우린 몰래 데이트도 하고 조심

하루씩 인연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 속에도 많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다. 이반이라는.. 동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저 그 이유로 우릴 욕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때문에..

#1. 일상속의 호모포비아

시험이 끝나고 나와 S 그리고 다른 친한 친구들과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영화를 들고 한참 보고 있을 때였다. 주인공 두 사람이 엄청 친해보였고 한 친구가 “둘이 엄청 친한가봐, 동생애자 아냐?” 라고 말하자 주변의 친구들이 더럽다고, 미쳤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지 알고는 있지만 나의 마음은 너무 아팠다. 그걸 듣고 있는 S도 미소가 없었다. 난 같이 욕하지도 웃지도 못했다. 내가 동생애자니까..

S와 나는 영화를 보고 바로 나왔다. 당당해지고 싶었다. S의 기분전환도 시켜줄 겸 난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걷고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표현도 했고 S도 웃어주었다.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수근덕대기 시작했다. 어떤 남자는 욕을 마구 해대기도 했고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며 쳐다보았다. 우린 곧 서먹해졌다. 당당하고 싶은데 당당해질 수 없는 현실이, 이 사회가 너무 싫었다..

#2. 친구, 커밍아웃 그리고 아웃팅, 이어지는 정신적 폭력

난 믿고 있던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평소에 친한 애들이었기에 난 믿었다. 하지만 이내 후회했다. 나를 이해할 수 없나보다. 이반이란 사실을 안후로 그들은 뒤에서 욕하기 시작했고 더욱 S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혹시나 피해가 갈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S도 표정이 좋지 않았고 불안감은 커져갔다.

내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사람은 같은 이반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오히려 나랑 왜 노냐며 뭐라 하는 것이었다. 거기다 제일 친했던 친구마저 배신을 하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욱 커져 화장실은 물론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에 관한 욕들이 가득 써있었다. 좀 더 당당해지고 종을 줄만 알았던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욱 서먹해졌다. 이젠 아무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S도 멀리서 몰래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학교도 더 이상 나가기 싫어졌다..

#3. 가족, 호모포비아 안에서 위로 받지 못하는 존재

난 뭔가 위로받을 곳이 필요했기에 언니한테 내가 동생애자라고 말했다. 언니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언니는 “너 미쳤니? 들었냐구!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내가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울컥했다..

“왜 이해 못해줘.. 이것도 사랑인데.. 똑같은 말이야.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데!?”

“난 그냥 보면 욕 나오고 더러워. 내가 이해했음 좋겠지? 난 생각하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어. 난 지금 내가 창피해. 내가 길거리에서 여자랑 손잡고 껴안고 키스하고 있으면 내가 제가 내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세상에 누가 동성을 받아줘? 있어도 너랑 똑같은 동생애자뿐이야. 다들 레즈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 친구와의 사랑은 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고쳐. 내가 도와줄게. 지금 사귀는 애 있으면 당장 헤어져.”

난 계속 울었다. 오히려 힘내라고 말해 줄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쁜 동생, 나쁜 딸이 된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눈물만 나올 뿐이다. S랑은 어떻게 지내야할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해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사랑을 포기해야할까? 왜 동생애자란 이유로 미움을 받아야할까?..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지?..

연애초년들의 이야기 part6. 동거

나와 그녀는 그렇게 그렇게 만났다. 그리고 그렇게 연애를 하였고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다른 연애사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은 '동거'를 해왔다는 것.

시작도 좀 유별났다. 나의 친언니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나나 그녀의 집이나 모두 레즈비언인 것을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나의 친형제들이 "OO가 남자면 이렇게 대놓고 같이 살았겠니?"라며 말하곤 했다. 얼굴에 첩판을 깔고 산지 몇 년이 지난 나로서는 그래서 뭐! 라는 반응만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됐다.

처음은 엄청 조심스러웠다. 서로간의 예정표현, 그리고 둘만 알 수 있는 언어 등등등.. 나 열하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 뭐랄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마 후부터 -정말로 우연이다^^ -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 둘만의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하면.. 뭐가 떠오를까? 옥탑방 고양이.. 그정도? 하지만 너무 귀엽고 너무 드라마틱한 설정이라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학생의 신분으로써 생활비로 써먹히고 한 공간에 살면서 서로 사생활이 없어 불편해하는.. 어느 룸메이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조금 다들게 있다면 자유롭게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서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잠들 때 깨어날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는 스트레이트 커플도 똑같이 겪을 이야기다.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자. 첫째로 온화한 주위의 시선이다. 대학생인 두 남녀가 함께 산다면 주위에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다. 하지만 우린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단지 친한 언니, 동생이 같이 산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두번째로 집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 레즈비언에 대한 서적을 여기저기 흠어봐도 꽤고 레즈비언 바에서 가지고 온 라이터라던지 레즈비언 영화라던지 거칠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였지만 가장 다른 점은 마지막이다.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까지라

는 점. 결혼은 미친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꼭 결혼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가 너무 아플 때도 서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집을 사고 차를 사도 공동명의는 힘든 일이고 무엇보다 명절이 될 때면 서로가 서로를 아프지 않은척 우아하게 위로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둘 중에 한명이 아파 죽게 되면 평생의 보람인 자식이 없어 정말 쓸쓸하게 죽어갈 수도 있다. 가끔 뉴스에서 한달만에 죽은 노인을 발견했다던가.. 그런 가슴 아픈 일들. 하지만 나는 현재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파트너십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법적으로 조금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동거에 대해 쓰라고 해서 너무 부담이 컸는데, 결국 별 내용이 없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냥

난

현재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사람이다.

초희, 그리고 그런 이야기 끝.

변태소년들의 이야기 part 5. 결혼

... ... 침실에는 기둥이 달린 커다란 침대를 놓아. / 난 침대만한 책상이 있는 서재가 필요해. / 어떤 자가 좋아? 너 배우고 다닐 거니가 함께 좋아. / 우리 둘 다 어느 정도 사회 경제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면, 아이도 기뻐. / 일 년에 한번 씩 여행을 가는 거야. 국내는 배려해. / 나이가 들면 한적한 교외에 집을 지을지? 양문마다 망충망을 잇으면 안 돼.

눈이 무시도록 완벽한 미래 있다. 그래서 우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너무나도 편하고 고통스러울 그 다음 순간들에 대해선 자문해 보는 편을 택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 둘 중 한명이 덜컥 커다란 사고를 당하면, 어느 날 당신 옆에서 눈을 감는 대신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라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의 아이가 사회에서 우리 둘의 아이로 서기란 불가능하고, 수술 동의서 보호자 란에 서명하는 건 당신이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며, 마지막을 지켜보지도 못한 이별 후엔, 우리가 공유했던 삶의 부분들 중 떠난 이의 이름이 적힌 추억들은 결코 남은 한쪽의 품 안에 간직되지 못하리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 사실 이런 극악한 예상보다 더욱 서러웠던 것은, 내가 저런 끝이 기다리는 삶을 기꺼이 감내하길 원했던 사실이었다. 그때만큼은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이유는 간단했다. 다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물론, 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내 빈약한 상상력은 저렇게 망측하도록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미 부풀기를 멈췄을 것이다. Same-sex marriage가 합법화된 나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 등이 있고,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버몬트, 코네티컷, 뉴저지, 뉴햄프셔셔이가 Civil unions로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한다. 또한 Civil Unions는 프랑스의 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영국의 Civil partnership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의 Significant relationships, reciprocal beneficiary relationships, common-law marriage,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life partnerships, stable unions, civil solidarity pacts 등을 포함하며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공인하고 있다. 권리와 세금 혜택, 의무 또한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보통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중여 등에서 공인된 이성 커플과 같은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부여하며, 자녀의 입양과 양육이 가능한 곳

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권리의 보장이 부재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한 "결혼은 시민적 결합civil unions지만, 시민적 결합은 결혼이 될 수 있는가"(Freedom to Marry의 Evan Wolfson)의 문제는 가진 이들의 여유와 사치처럼 느껴질 따름이다.

사실 이성애자들의 동거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가정 하에 가족 수당이나 사회보장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같은 보호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성애자 커플에게 보다 다양하고 관대한 형태의 합법적 결합들이 허용되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세계 곳곳의 동성애자 커플은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한 단 한 가지 형태의 결합-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제도적 공인이 동성애자 커플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리란 생각은 하기 힘들다.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지라도, 여전히 이성애 중심주의로 점철된 삶의 영역 대부분에서 동성애자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클로젯팅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테니까. 그럼에도, 모든 것은 다시 선택의 자유로 귀결된다.

지금의 우리는 늘어진 자락이 바닥에 끌릴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마다 느끼지만 차마 밀쳐내지 못하는 무게는 우리의 고단한 삶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를 부정하다 하는 혹자들의 신 앞에서 결합을 축복해 달라 요구하며 그들의 눈엔 모독적 과시에 불과할 키스를 나눌 생각도 없다. 신성한 '혼인'의 이름으로 동성애자의 결합을 지칭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면 기꺼이 다른 명칭을 수용할 준비마지 되어 있다. 물론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 후라면, 파트너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식을 올릴 장소를 찾아 하객 앞에서 반지를 교환한 뒤 영원 간을 키스로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공고해진 결합의 시작을 알리길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결합 역시 결혼이라 불러 달라 당당히 요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완전한 평등을 향한 하나의 단계일 테니까. 그러나 지금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미래를 꿈꿀 선택의 권리이다. 현실이 되면 깨어질 꿈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꿈 역시 이성애자들의 그것처럼 깨기 전까지는 아름답게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한다.

김. 경관. 주.

우리도 연애를 하고 살아갑니다.
첫만남의 떨림을 간직하고
소소한 일로 다투고 토라지고
연락이 올까 휴대폰을 들고 잠을 설치고
기념일을 챙기고 그녀가 웃는 얼굴에 나도 따라 웃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앞에선 쿨한 척, 그리고 며칠을 앓고
그러다 새로 사랑을 시작하고

이렇게 오늘도 다름없이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언젠가 닫혀있는 세상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길 바라며
변태소녀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WE_ARE_LESBIANS
SO_WHAT WHO_CARES

이와사시달귀연각의 변태소녀들의 만남

flyinggurl@hanmail.net

02) 3277 4712



생활도서관

● 기획도서 취지글 ●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거리감

연애 하고 싶다.
온 몸이 상기되고 들뜬 마음을 주체 못하며 하루 종일 넋이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다.
지금 그 누군가와 만나고 싶다.

새 봄, 우리에게 희망인 동시에 고문의 계절. 따스한 햇살 아래 손을 마주잡고 밖으로 나가고만 싶어지는 이때.
남들은 잘만 연애도 하던데, 소개팅에는 번번히 폭탄만, 학원에서 만난 멋진 오빠와는 서로 미적대다 결국 흐지부지…… 왜 나에게는 멋진 남자가 들어오지 않느냐고 속상해 하는 이화인이 한 둘일까?

이번 2008년 첫 기획도서의 주제는 바로 연애. 우리 생활 도서관에서는 사랑, 연애에 딱 어울리는 책 9권을 선정해 보았다. 연애를 못한다고, 아니 하고 있다 해도 가슴 뛰는 연애가 그림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봄에 책장을 넘기며 우리의 로망을 충족시켜 보자.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편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연애 이야기도 나눠보려 한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기에.

이화인들도 다시 한번 봄바람을 타고 연애를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 혹시 아냐? 꿈꾸던 연애가 다시 시작될지.

정 연주

● 기획도서 목록 ●



1. 도쿄타워 - 에쿠니 가오리

세련된 문체와 투명한 감수성으로 국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쿠니 가오리가, 이번에는 남자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 곁에 찾아왔다. 도쿄 타워가 지켜봐 주는 장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는 작가는 특유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의 상황 전개를 통해 도쿄에 사는 스무 살 소년들의 조금 특별한 사랑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2. 롤리타 - 블라디미르나보코프

12살 소녀와 중년 남자의 사랑을 다룬 충격적인 작품 <롤리타>. <롤리타>를 읽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운명적이고 격정적이고 마술적인 것, 극도의 자제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광적인 것. 어린 소녀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만의 환상 속에 묻혀 은밀한 기쁨을 맛보던 공인, 험버트 험버트. 나보코프는 그의 진지함과 슬픔을 롤리타의 장난기로 우스꽝스럽게 받아낸다.



3. 11분 - 파울로 코엘료

인간에게 사랑과 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에 성스러움이 담길 수 있는가, 그 성스러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작가로서 코엘료는 오래 전부터 성에 대한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늘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 그러다가 젊은 시절 창녀라는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한 여성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이 소설이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4. 19 그리고 80 - 콜런히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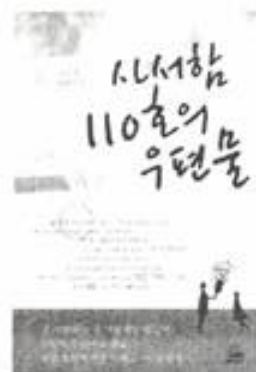
삶에 대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살 소동을 벌이는 해럴드는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수박을 먹으며 씨를 뱉어내고 있는 모드 할머니를 만난다. 묘지에서, 폐차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 현장에서 즐거움을 찾던 해럴드는 양배추밭에서 막 태어난 아기들이 있는 병원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국화꽃들이 가득한 꽃밭에서, 20미터나 되는 높다란 나무 위에서 모드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삶에 대해,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영화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공연되면서 전세계 젊은이와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소설은 열일곱 번이나 자살극을 벌인 19세 소년과 의지할 곳 없지만 유쾌하기 그지없는 80세 노인 모드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감동을 더한다.



5. 책 읽어주는 남자 - 베른하르트 솔링크

1999년 2월 <오프라 윈프리 쇼>의 '북클럽' 코너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를 소개할 당시 토론 참가자들 사이에 가장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열다섯 살 소년 미하엘과 서른여섯 살의 성숙한 여인 한나 사이의 사랑이 과연 사랑인지 성적 학대인지 하는 문제였다. 스튜디오에 나와 이 질문을 받은 베른하르트 솔링크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미국에서만 있는 현상이라고, 독일이

나 프랑스 등 유럽의 독자들에게서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질문을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며 그러한 관심을 하나의 미국적 현상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미하엘과 한나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전쟁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관계와 세대 차이였다고, 미하엘과 한나의 관계는 소위 '68 세대'라고 불리는 신진 세대와 구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포라고 설명했다. 사랑과 나치의 시대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인간의 자존심과 약점의 문제가 이 소설의 내적인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미하엘과 한나의 사랑은 솔링크의 설명처럼 보다 높은 차원을 향한 알레고리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사랑과 죄의식, 이해와 유죄판결, 그리움과 수치와 분노라는 상반되는 감정이 주인공의 마음을 끝까지 괴롭히는 모티프로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철학적인 차원으로까지 상승한다.



6.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 이도우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한 번쯤은 사랑에 실패도 해 봤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 보았을 30대 주인공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 사랑해 보기로' 마음을 맞춰가는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 톡톡 튀는 에피소드와 음미할수록 맛이 나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 즐겁고 산뜻한 작품이다.

사소한 규칙이라도 당연한 듯 지키며 살아온 한 내성적인 여자가, 처음으로 먼저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노크해 보지만 '지나가는 바람일지도 모른다'며 당당히 말하는 남자 앞에 잠시 웅크리고 만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따라 잔잔하게 진행되는 이 글은 사랑하는 일에 능숙하지도 그렇다고 소홀하지도 않은 또 다른 많은 '그녀'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7. 오요나의 싱글데이즈 - 오요나

이 책은 그저 감성만으로 뽐낸 에세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칼 같은 자기관리만을 강조하는 자기계발서도 아니다. 어쩌면 뽐뽐그러졌을지 모르는 라이프코칭, 저자 오요나의 삶의 이야기이자 싱글 후배들에게 던지는 자기계발의 충고이기도 하다. 실제 저자 자신이 해 보았던 재테크, 사회생활 10년차로서 느끼는 전쟁같은 회사 생활, 쓰디쓴 연애, 가장 힘들 때 진정으로 나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헤안 등 싱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뿐 아니라,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8. 냉정과 열정사이 - 에쿠니 가오리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 수상작가 <츠지 히토나리>와 여자 무라카미 하루키로 평가받는 <에쿠니 가오리>가 2년여에 걸쳐 실제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간 릴레이 러브스토리! 어느 날 '하나의 소설을 번갈아가며 함께 쓰기'로 한 두 사람의 작가, 주제는 영원한 테마인 사랑이다. 물론 남자작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여자작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쓰기로 한다. 그러나 소설판 '오 수정!'을 생각하면 곤란하다. 같은 상황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재회를 가슴에 묻어둔 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헤어진 연인들의 인생을 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여자와 남자, 냉정과 열정... 서로 다른 두 권의 이야기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소설로 완성되는 독특한 릴레이 러브스토리이다.

● 서 평 ●

오요나의 싱글데이즈

싱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5000 만 원 이상의 연봉, 전문직, 자기 자신에게 마음껏 투자하는 여유' 늘어나고 있는 골드 미스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들은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한다. 이들의 삶은 화려하고 멋져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않다. 외양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무언가에 대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홀로 사는 외로움..... 이 밖에도 싱글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 책은 싱글들에게 주는 충고들로 이루어져 있다. 싱글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위한 인생 지침이다. 골드미스인 저자가 경험에서 우려나오는, 실천적인 조언을 준다. 저자는 싱글들을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하지만 때로는 냉철하게 비판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저자의 충고들은 어느 정도 진부한 면이 있다. 때로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 책의 신선함은 저자의 시각에 있다. 싱글들에게 인생을 사는 법을 조언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도 말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들인지, 인생후배들에게 조언하면서 자신도 속으로 그래야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저자는 어쩌면 골드미스가 아니라 스웬미스(스테인리스+미스,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싱글)일지도 모르는 대다수의 싱글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채테크 방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인 여유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 중점을 준다. 사회적으로는 소비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싱글에 주목하지만 저자는 싱글 개개인이 가지는 행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서 평 ●

냉정과 열정사이

“봄은 출발의 계절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의, 그리고 출발의.”
(본문 중 아오이의 말)

사람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성장하는 동물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키가 자란 것이 느껴질 만큼 속속 성장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마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친구의 말 한마디, 좋은 사람
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 죽을 듯이 아프고 날아오를 듯이 기쁘다. 그렇
게 키가 자란 만큼 마음이 자라면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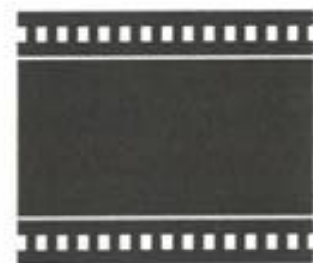
아오이와 준세이는 대학시절 만났다. 이미 몸은 다 커있지만 마음은 미처 다
못 자란 그들에게, 사랑은 어쩌면 ‘성장통’같은 것이었으리라.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사랑보다 그들의 마음이 어렸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들이 헤어져 스스로에게 몰두하며 보냈던 시간은 고요하고 단조로웠
지만, 그 시간동안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치열하게 그리워했다. 조용하지만 단단
히, 그 커다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성장’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 5월, 아오이의 서른 살 생일이 되었다. 느릿느릿 성장의 시기
를 건너며 두박두박 막속의 장소로 향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
을까? 피렌체의 두오모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들의 사랑 - 영원한 사랑이나
소울 메이트라는 가벼운 말로는 정의내릴 수 없는 - 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확인했던 것은 아닐까.

시간은 잘도 흐른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봄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 책과 함께 - 봄에 만나 사랑하고 헤어진, 그리고 다시 만나 여전히 사랑하
고 있음을 확인한 그들처럼, 단단하고 가슴 벅찬 연애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 진우



시네마메끄

지금은 연애 중

- 연애 속의 권력

	월 3/17	화 3/18	수 3/19	목 3/20	금 3/21
2시	휴관	론리하츠 /토드 로빈슨 108min	절투는 나의 힘 /박찬욱 125min	생활의 발견 /홍상수 115min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김해곤 125min
5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유하 103min	글루미 선데이 /물프 슈벨 112min	해변의 폴린느 /에릭 로메르 94min	위터 드롭스 온 버닝 락 /프랑소와 오종 90min



봄날은 항상 온다. 봄날은 우리가 찾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봄 한가운데 있다고 여겨질 무렵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사회적 성공에 관한 성취감이나 자긍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대한 감정의 폭발로서의 실패, 열정 혹은 '연애' 그 자체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여타의 복잡하고 끔찍한 판단의 요소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온통 부유하며, 가파르거나 솟아오를 때까지 봄을 찬양할

뿐이다.

그러나 연애도 인간의 일인지라, 언제 어디에서나 불쑥 솟아나는 (혹은 그와 같이 느껴지는) 크고 작은 억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어쩌면, 부정하거나 포기하면서도 그것을 예외적인 요소로 취급하면서 '연애'에 대해 막연히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우리는 '연애'를 인간사에서 분리된 특별하고 특이한 경험이라고 미화하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이러한 통념을 극복하고, 나아가 영화적 책임을 스스로 변명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인간이 등장한 이래 항상 동시에 존재해왔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코드인, 그리하여 서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연애와 권력을 영화 내부에서 동시에 발견하고 그 구조를 목격하거나 혹은 분석하였다.

'연애' 속에 드러나는 권력구조는 때로는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때로는 기괴한 모순을 동반한 평화를 위장한다. 한편, 후자의 영화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권력이 드러나는 시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인물의 호감이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획득했을 무렵 서서히 생성되거나 카리스마적 인물, 마성적 매력을 지닌 단 한명의 인물에 의해 순간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영화들은 '권력'과 '연애'의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들은 '연애'가 원인이야 어쨌든 실존하게 된 권력관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를 (대개는 약자의 일방적인 감수일 터지만)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다소 서글픈 현실을 직설하면서도, 인간관계특유의 속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그 상호의존성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의와 합의의 절차가 비참하거나 모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이 하나의 관계에서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고 하나의 관계에서는 강자의 위치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온 사슬적 구조를 답습하지는 않는다. '연애'는 두 인물간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며, 따라서 권력관계도 그러하다. 영화가 소위 삼각관계나 사각관계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영화 내부의

인물이 하고 있는 연애는 온전히 두 사람에게만 속하는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로써 영화는 권력이라는 비인간적인 구조 속의 연애에서 인간적인 신성함을 획득하고 있었다.

모더니즘 예술의 기치가 분산되고 낡은 것들을 일관적인 기준 아래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편성하는 작업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는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 사이에서 낡은 것을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애'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아이템일지도 모른다. 이 달콤한 환상은 현실을 직시할 때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다시 봄날을 기다리는 이유다. 지겨운 줄도 모르고.

론리하츠 Lonely Hearts

로드 로빈슨 / 2006 / 미국 / 108min

영화 <론리하츠>는 영화와 동명의 신문코너를 통해 만난 17명의 여자를 살해한 킬러 마사베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1996년 <젊은 선홍색>이라는 원작을 리메이크했다. 영화 속에서 짝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남녀들이 신문상의 '론리하츠'라는 코너를 통해 편팔을 하는 행태는 그것의 주역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영화의 사건이 되는 사기와 살인 같은 것들)까지도 현대의 인터넷 채팅과 닮아있어 사뭇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론리하츠' 코너를 통해 이혼녀, 노처녀들에게 사기를 쳐 생계를 유지하는, 매력적인 남자 레이몬드와 바닥에서부터 진정한 꽃병인 마사베는 각자의 개별적이나 동일한, 생계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만나고 서로에게 끌린다. 하지만 레이몬드와 콤플렉스를 이루어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마사베는 다른 여자



들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면서 점차 감정적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감정적 약자가 곧잘 그러하듯, 마사베는 레이몬드의 사랑을 확신 받고 싶어 안달한다. 타인의 죽음으로 사랑을 확신 받으려는 마사베의 극단적인 요구에 일개 한심한 제비였던 레이몬드가 미치광이로 변해가는 과정은 자라트 레토와 셀마 헤이렉의 연기에 의해 더욱 빛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권력과 현상적 권력의 차이는 스틸러라는 장르적 특성에 힘입어 더욱 극단적이고 처절하게 그려진다.



결혼은 미친 것이다

유하 / 2002 / 한국 / 103min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도의 극복이나 성별에 대한 관습의 극복 같은 것들만이 멜로 영화가 도전하는 계도나 관습이 아니다. 영화 <결혼은, 미친 것이다>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결혼이라는 계도에 갇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나 불필요한 환상에 전면적으로 시비를 거는 영화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연희와 준영은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녀다. 둘의 첫 만남은 그 나이때 남녀의 전형적인 행보와 일치하고 작품 특유의 일관적인 맥락에 따라 두 인물은 처음 만난 밤 격렬한 섹스를 한다. 이렇듯 서로를 구속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만나던 둘은 연희의 조건 따진 결혼에 의해 조금씩 그 기이한 권력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즉, 이 영화는 결혼을 요구했던 연희의 이상적인 중혼 생활에 의해 조금씩 이전까지의 자신을 잃어가는 준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혼이나 약속에 매달리는 편이 약자가 되는 관습적인 연애의 권력 구조를 철저히 배반하는 것이다.

<결혼은, 미친 것이다>는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처럼 결혼 놀이를 즐기는 연희와 그녀에게 휘말리는 준영을 통해 연애 관계에서의 권력 구조가 전복되는 과정을 과감히 묘사하고 있다.



질투는 나의 힘

박찬욱 / 2003 / 한국 / 125min

유부남에게 가벼린 전 여자 친구는 원상의 무덤 답함을 비난한다. 원상은 그 유부남이 편집장(윤식)으로 일하는 회사에 호기심어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회사일로 만난 성연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정말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윤식과 그녀가 잠자리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이다. 성연에게 품는 마음은 질투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다. 성연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곧 윤식과의 대등한 입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원상은 점차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식은 어른이다. 현실에 타협하고 속물이 된 어른. 나르시스트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이 남자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주변 이들을 구속하고 착취하는 권력자이다. 하지만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신의 로맨스를 위해서이다. 속이고 부리고 이용하면서도 '잘해주면 그만'이라는 게 그의 저본이다. 그의 의식 속에 그는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를 항상 말하고 다닌다. 주위 사람들 또한 이러한 그의 태도에 설득 당한다.

사회인으로서 첫발은 내딛지 얼마 되지 않은 모든 게 어설픈 원상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를 질투하면서도 동경하고 결국 동화되어 간다. (하지만 윤식은 다만 이기적이고 계 몇대로 굴었을 뿐이다.) 여기서 윤식의 존재감과 권력은 원상과 성연,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둘만의 일인 연애가 윤식의 지배 아래 휘둘리고 종속되는 것이다. 차를 몰았지만 자기 차가 아니라 윤식의 차라는 것을 알듯이 원상은 성연을 자신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윤식이다라고) 말한다. 결국 윤식의 권유로 집에 들어가게 된 원상은 윤식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그의 아바타로 전락하고 만다.

글루미션데이 Ein Lied Von Liebe Und Tod

로프 슈벨 / 1999 / 독일 헝가리 / 112min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한 여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두 명의 남자가 있다.

자보와 일로나는 매우 행복한 연인이다. 그들은 함께 자고, 목욕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레스토랑의 피아니스트로 안드라스라는 청년이 들어오게 되고 그와 일로나는 한눈에 반해버리고 만다. 결국 이 간절은 벌어지지 않는다. 대신 기이한 화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일로나를 완전히 잃느니 한 부분이라도 갖겠어" 이렇게 하여 그들은 매우 독특한 삼각관계를 유지한다. 두 남자는 한 여자를 절반씩 소유하고, 한 여자는 두 남자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특이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 맺기로 둘은 모두 사랑하는 일로나는 본의적이지 않은 권력을 갖게 된다. 자신을 다시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풀밭에선 양팔에 애인 둘은 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절반씩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안드라스를 위해, 자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거리를 달린다.

반면에 일로나를 결혼으로서 독점하려고 했던 한스는 욕심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오히려 절반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망치고 결국 파멸하고 만다. 절반이라도 갖겠다고 외치던 자보와, 안드라스가 오히려 서로 그녀를 100%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연애는 사랑하는 이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하기에, 또한 각각 둘만의 이야기이기에 말이다.

생활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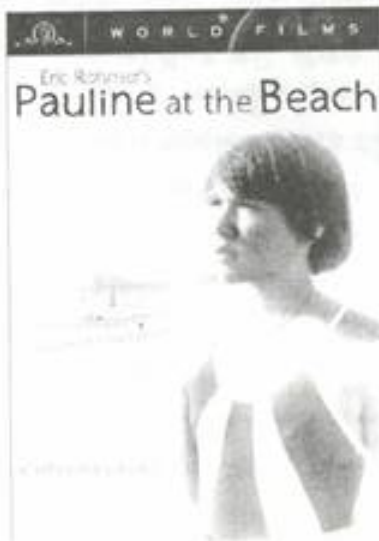
홍상수 / 2002 / 한국 / 112min

미완성 시나리오로 시작한 홍상수 감독의 4번째 작품인 <생활의 발견>은 브리트 머트만을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촬영해나간 영화이다. 이런 현장 특성이 반영된 듯 영화 속의 인물들은 누구 하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는 곧 3류 인생의 질척거리는 삶을 그려내는 감독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출연에 실패한 경수가 훌쩍 떠난 6박7일의 여행은 여자를 좇는 소일거리나 하는, 일상보다도 더 일상적인 여행이다. 춘천에서 만난 무용수 명숙은 경수의 편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경수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살사를 추고, '이색한 거 깨게 보보나 한번 하자'는 풍부한 여자다. 명숙은 조금씩 경수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런 명숙을 경수는 '괴물' 같이 느끼게 된다. 명숙을 떠나 올랐던 기차에서 경수는 유부녀 선영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끌리면서 그가 영화 내내 읊조리는 '인간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던 말 속의 '괴물'이 되어간다.

영화는 이처럼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에게는 권력의 강자가, 그리고 다른 한 여자에게는 권력의 약자가 되는 모습을 모방의 패턴을 이용하여 그려나간다.



해변의 폴린느 Pauline A La Plage

에릭 로메르 / 1983 / 프랑스 / 94min

<해변의 폴린느>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일원인 에릭 로메르의 '희극과 격언 6부작' 중 하나이다. 영화에는 에릭 로메르 감독 특유의 여러 세계관이 혼재하며, 치밀한 세부 묘사를 통해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탐구하고, 효율적인 촬영기법으로 자연의 정경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어, 1983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은 직접적인 대사로 연애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카메라를

향하는 은밀한 시선은 이들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로 점철되어있음을 표현한다. 그들은 운명적 만남과 관계의 진정성에 대해 탐구하는 듯해 보이지만, 등장인물의 척도역할을 하고 있는 폴린느를 통해 그 여

위성이 증명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자에게 원하는 바가 다른 4명의 인물이 스스로의 욕망을 성취하는 태도를 세밀히 묘사한 영화 속의 정치성은 몹시 흥미롭다.

정원의 문이 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해 문이 닫히는 것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여름 휴가차 해변에 놀러왔다가 생긴 사건의 해프닝적 요소와 일치하며, 영화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해변, 정원의 정경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허위성과 인간의 가식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 유희성을 존중하는 극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전개하고 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김해곤 / 2006 / 한국 / 125min

하드웨어로 보나 소프트웨어로 보나 루저로서 손색이 없는 영운. 그에게는 자신이 세컨드가 될 줄 알면서 당당하게 접근한 연애가 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두 집 연애 집에 몸도 마음도 고달픈 영운과 그에게 이끌리 날 만도 한 술집 아가씨 연아의 피 터지는 멜로 영화다. 이들은 님은 꿀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욕하고, 연애하며 한바탕 질펀하게 논다. 적어도, 영운이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처음부터 약혼녀가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시작한 이 연애는 그 시작과 함께 권력 관계가 이미 내재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영운의 결혼 전에도 간간이 그 면모를 보이는데, 그의 결혼은 그들의 권력 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고, 결국 모두가 예상하는 그 약자는 강자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진다. 특히, 이 영화에 드러나는 남성 우월적인 권력 구조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한국 남성 정체성의 결정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조리한지를 현실적으로 꽤나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파이란>의 시나리오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해곤 감독의 첫 영화로, 전작에서 보여준 삶과 사랑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그의 데뷔작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워터드롭스 온 버닝 락 Gouttes D'Eau Sur Pierres

Brulantes

프랑소와 오종 / 1999 / 프랑스 / 90min

(세마나의 모태이자 권력의 집약적 형태를 보여주는 이 영화는 파스빈터의 연극을 영화한 작품이다. 그 답게 영화는 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극적인 과장됨과 극단적인 연출이 두드러진다.)

20살의 청년 프란츠는 중년의 사업가 레오폴드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처음에는 매우 대등해보이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형을 입고 권력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레오폴드는 마성의 매력으로 그의 집에 들렸던 프란츠의 여자친구와 옛 애인 베타 까지 끌어들이면서 그는 영화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게 된다.

프란츠를 싹둑하려온 안나를 대하는 프란츠의 태도와 반대로 레오폴드를 대하는 프란츠의 모습은 여러 관계에서 다양한 층위를 구사하게 되는 연애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레오폴드에게 휘둘리는 세 사람들에게서 절대적 카리스마 앞에서 약해지는 나약한 인간본성을 찾을 수 도 있다.

레오폴드를 공유해야만 하는 새로운 규칙에 동의하지 못한 프란츠는 게임을 포기하고, 도태된다. 프란츠는 어느 순간 삶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된 게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목숨도 포기하고 만다. 불리한 규칙에 동의할 것인가? 게임을 포기 할 것인가? 실제 연애에서도 죽음을 맞지는 않더라도 감내해야할 관계의 파멸이 있기에 문제는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

영화에서는 왜 레오폴드에게 모두가 이토록 빠져들고 열광하게 되는 지는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그려져 있으므로 그렇게 받아들이야한다. 하지만 어찌보면 우리의 연애도 그렇다. 왜 끌리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후엔 규칙에 동의할 것인가 라는 선택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화여성위원회

'연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독 사과'같은 것들.

콜린

'연애'란 개념은 실상 근대의 산물이다. 서구에서 19세기 말부터 자유연애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1944년 이후, 종전 이후부터는 빠르게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한 성해방과 '연애'의 개념이 보편화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연애사상이 등장하고 정착되었는데 서구가 1세기 동안에 걸친 변화를 한국에선 그보다 더 압축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당연해 지기 시작한 것은 꽤 근래의 일이라는 것이다.⁹⁾

'연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유연애'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온 로맨스(romance)일 것이다. 로맨스는 처음에 서정적인 서사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공상적이며 서정미가 넘치는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다시 몽상적 내용을 담은 소설을 지칭하게 되었다. 오늘날엔 이 몽상적 소설, 영화와 TV드라마를 통해 더욱 실감나는 로맨스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로맨스'에서 보여주는 연애의 구조가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데에 있다.

'로맨스'가 공상적이며 서정적인 사랑이야기를 뜻하는 것처럼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데 어째서 '로맨스'가 문제시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가상의 '로맨스'가 현실의 '연애'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맨스에서는 사랑'받는' 여성상과 의지하고픈 '남성상'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은 주인공들을 빛내는 조연이 될 뿐이다. 이 기준은 현실에서도 적용되어 가날프고 눈부시게 아름다워 사랑을 주고 싶은 여성과 그 나머지로 구분되어진다. 버림받고 상처받거나 조연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외모를 가꾸고 '사랑받을 만한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실에선 그것이 자기관리로 치부되고 노력만 있으면 외모든 로맨스든 다 성취 가능한 것으로 왜곡 된다.¹⁰⁾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사랑받을 만한 여자'가 되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성형을 감행하는 여성들,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 주변화되는 여성들의 고통은 감내

해야 하는 것 또는 감내할 만한 것, 심지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 칭할 수도 없다고 여겨지는 폐해를 낳는다.

앞서 말했듯, 만화, 인터넷 소설, TV드라마, 영화 등 소비 가능하고,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로맨스들은 우리들 공상의 수준을 넘어선다. 공상의 수준을 넘어선 로맨스는 나의 '연애'는 물론, 타인들의 '연애'까지도 간섭한다.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안'하는 사람도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으로 나누고, 일명 '솔로'들에게 낯아빠진 츄리닝을 입고 컴퓨터 게임이나 즐기는 게으른 이미지를 선사(?)한다.¹¹⁾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정상성 혹은 우월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러 '연애'의 형태 속에서도 나누고 나뉘어 유성애/무성애, 이성애/비이성애, 10~30대/그 이상, 장애인/비장애인, 중,상층/그 이하 등과 같이 분류하고 정상성/비정상성을 부여하며 정상적이지 못한 연애는 사회적 질시를 감내하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나는 로맨스를 부정하진 않는다. 오히려 로맨스의 비현실성에서 가능성을 본다. 로맨스, 그것은 신데렐라 동화 속의 사랑을 갈라놓는(우리들의 연애를 막아서는) '독 사과'처럼 기능하는 것이 아닌, '연애를 하지 않음'을 포함한 연애의 다양한 형태가 로맨스를 통해 존중받고 지지받으며, 로맨스를 통해 권력관계의 조장되는 것이 아닌, 지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은 지금의 로맨스의 정해진 틀(연애의 틀)을 깨고, 편협한 시각을 깨고 '변태'할 때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우정인지 연애인지 구분조차 모호한 우리들의 소소한 인간사를 다룰 때, 조금은 먼 나라 얘기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 지향할 가치가 있는 이상적인 관계(어떤 형태의 관계도 배제되거나 배척되지 않는 관계)들을 다룰 때 말이다.

9) 여성주의 저널 일다(www.idia.com) <'연애'가 여성에게 남긴 것>, 김윤은미

10) 최근, 영화<미녀는 괴로워>라는 로맨스에서 이러한 '왜곡'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11) 최근, 드라마<호타루의 빛>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이미지의 보편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김에서 편한 옷을 입고, 맥주를 즐기며 귀찮아하는 것이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게으른' 특징일까?

'커플'(연애)권하는 사회

차차

- '커플 VS 솔로부대'라는 이분법의 시대

지금 모두가 '커플'(연애)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한국 특유의 '커플'중심적인 문화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버렸다. 요즘에는 커플이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 '솔로부대'라고 한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커플 상품들과 같은 커플 중심적 문화는 커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낙인찍고, '커플(정상) vs 솔로부대(비정상)'라는 이분법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솔로부대'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커플'이 되어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비정상'의 영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커플중심주의'라는 현상은 '커플'이라는 단어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커플 : 배타적인 1:1의 비장애인인, 20-30대 이성간 연애 중심성을 나타내는 권력화 된 애정관계]

- '커플을 위한 세상'을 부르짖는 '커플마케팅'

커플 마케팅은 현재 커플 중심적 문화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현 시기에, '완벽한'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라는 통념이 무시될 수 없을 만큼 커플 마케팅의 위력은 강력하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추구에 따른 커플마케팅은 연애관계의 다양함을 배제시키고, 앞서 정의내린 '커플'이라는 의미로 한정시킴으로써 더욱 권력화 된 '커플'담론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이미지화된 커플의 모습은, 기업의 이윤논리에 포섭되면서 인간관계조차 소비 대상화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한 광고기획자의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 "커플 시장은 이미 형성돼 있다.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베베로 데이, 크리스마스 등의 시즌에 이러한 커플들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을 기획하면 수익성은 확실하다. 커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제는 음식, 놀이문화, 인터넷 공간, 휴대폰, 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커플중심의 소비시장이 거대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기업의 판매 전략에 의해 커플중심적인 시/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 14일은 커플마케팅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렸고, 2월 22일은 커플 데이라는 등 커플중심적인 시간의 재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은 커플마케팅을 위한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커플중심의 연애문화에서 흔히 떠올리는 놀이동산의 2인석이나 극장의 커플석과 같은 공간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았다. 요즘에는 커플만을 위한 카페, 커플만을 위한 엘리베이터, PC방의 커플전용석, 비만센터나 마사지센터의 커플전용 공간과 이벤트, 커플만 초대한다는 콘서트 등 일상적 공간에서도 커플마케팅중심의 공간화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까지 커플만을 위한 커플쇼핑몰, 커플홈페이지, 커플미니홈피, 커플 동호회 등, 커플마케팅을 위한 공간이 탄생되고 있다. 커플룩이나 커플 요금제 같은 상품은 기업에게 커플 마케팅의 고정된 이윤창출원이 되버린 지 오래다. 한국에 있는 초국적 패스트푸드 기업은 커플을 위한 음식 메뉴를 만들어 월 30억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체국은 커플 사진으로 만드는 커플우표까지 찍어내고 있다. 금융시장의 확대는 커플을 위한 금융상품까지 만들기에 이르렀다. 커플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커플 통장 등.

이처럼 기업들이 커플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윤 창출이 잘 된다는 것과 더불어 '커플'(연애)가 정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업은 '인류에게 있어 낭만적 사랑은 영원한 테마이기에 사랑의 판매 공략으로 커플마케팅은 안성맞춤'이라고 까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과연 '낭만화 된 이성애 커플'의 각본은 인간에게 영원불변한 실체인가.

커플(연애)이데올로기

이러한 낭만적 사랑이 인류에게 영원한 테마라고 떠드는 기업의 태도는 커플(연애)이 근대 이래 탄생한 이성애 중심의 낭만적 사랑(연애)이데올로기의 현 시대적 양태임 알려준다. '커플이데올로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철수와 영희' 같은 한 쌍의 여/남이라는 '판에 박힌' '사랑'에 대한 환상을 조장한다. 한국이라는 사회의 경우 '커플'이데올로기의 특수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은 '혼자'를 인정 못하는 문화다. 혼자 밥먹는 것, 영화보는 것, 술 먹는 것 등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좀 그런' 일이다.

결국엔 이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한 욕망과 삶의 형태는 커플(연애)이데올로기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으로 조장된 '커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비이성애자, 장애인, 어린이/노인 등에게 '사랑'하고 '연애'할 자유는 멀기만 하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근대 이래로 이성애 중심인 커플(연애)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

- 정상가족을 향한 커플이데올로기

낭만적 사랑이데올로기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면서 결혼제도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가족을 이루기 위해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더 값싸고 유연한 숙련된 노동력의 착취를 통해 유지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지되어온 성별분업은 자본주의와 산업 발달에 따라 더욱 체계화 되고, 남성 중심적인 산업으로 재편된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어 남성에게는 성적으로 봉사하고, 무상으로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생산(출산)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한다. 따라서 혈연과 이성애적 1:1의 성적 결합 이외의 공동체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비정상이라 낙인찍힌다.

앞서 살펴 본 커플마케팅 중 커플금융상품이나 커플매니저라는 직업군의 등장,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가 커플마케팅의 주요 소비대상이라는 점은, 커플마케팅이 정상가족을 이루기 위한 자본(결혼 비용)의 움직임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K은행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라고 '커플통장'을 개발해냈다.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00사의 커플 자동차 보험은 만약 당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차의 운전자 범위를 '부부'의 명의로 한정한다. 이렇듯 실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커플'상품들은 철저히 비장애 이성애 중심적인 커플이데올로기와 그 바탕이 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

'커플'(연애) 중심주의를 너머

우리는 지금 혼자서 밥 먹는 것이 좀 이상한/비정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또한 커플 VS 솔로부대라는 이분법과 기업의 커플마케팅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기반 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상성'에 기반하고 있는 커플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내면화되고 개인들을 억압하면서, 개별 인간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부차적인 것 혹은 없는 것과 같이 취급한다.

그렇지만 '커플'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커플'담론을 넘어서, 더욱더 다양한 인간관계(사회적 소수자들의 애정 관계, 가족문제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커플 중심적인 '정상성'의 담론(커플이데올로기)을 깨트려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인간관계와 성(性)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소비 대상화 시키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하다. :)

* 흔히 커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배타적인 1:1 관계 중심의 연애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1의 관계자체도 그 부분만 따로 떼어뜨려 설명하기에 불가하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1:1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와 논의들의 진행을 통해 담론을 형성해야 할 것 같다. (폴리아모리를 소재로 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을 참고하시길.)

'이'성애중심주의

다현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자들 간의 재생산을 위주로 하는 성관계만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비이성애 혐오증을 사회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비이성애자들을 주변화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성(異姓)'이란 사회적으로 정의된 여/남을 뜻한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성애가 아닌 그 이외의 모든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간주하고 심지어는 병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성애중심주의가 철저히 퍼져 있는지는 길거리에 나가 잠시만 둘러보아도 알 수 있다.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이성애 커플을 위한 티셔츠, 열쇠고리, 영화관 할인 등등. 어디에도 비이성애 커플과 커플이 아닌 개인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얼마 전 의결된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며 성적지향을 삭제하여 사실상 이성애자를 제외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하에 암묵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손을 꼭 붙들고 장을 보는 남성 둘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은 본인 이 아닌 주변인조차도 느껴질 정도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남의 만남인 이성애만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사실은 이성애, 동성애라는 단어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수많은 성애가 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막거나 욕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성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보자.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을 가졌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다른 남성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이 사람을 게이라 할 것 인가, 이성애자라 할 것 인가. 반대로 그 사람이 다른 여성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애자인가 레즈비언인가. 또 다른 경우도 있다. 드라마 <L word>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지만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자신의 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dildo를 이용한다. 이 인물과 여성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 할 수 있겠는가. 이렇

게 이성애로도, 동성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섹슈얼리티¹²⁾를 살펴보자. 누군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키가 크고 하얀 사람에게 끌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이 가는 남성에게 끌리기도 한다. 누군가는 성관계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sm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각각의 성애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든, 그렇지 않은 간에 모두 다르다. 이성애가 아니라고 해서 동성애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잘 못 되었을뿐더러 섹스와 젠더¹³⁾ 모두 여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섹슈얼리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성애와 비이성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경계도 매우 모호하여 잘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성애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사람들은 각각 생김새가 다르듯, 목소리가 다르듯, 성격이 다르듯,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애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성애의 '이(異, 다를 이)'가 사회적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개인의 모두 다른 성애(물론 이것은 무성애도 포함되는 범위이다.)를 뜻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이렇게 재 정의가 된 '이'성애 중심주의라면 얼마든지 환영하며, 지지할 것이다.

12) 섹슈얼리티 : 성별뿐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성적 선호, 규범,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성에서 성을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봄.

13) 젠더 : 사회적 성차 혹은 성별로서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정의되는지를 의미, 성별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분.

데이트성폭력

귀찬

사랑에 관한 수사어구 중 약간 통속적인 표현들로 "사랑은 서로의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은 두 사람의 조합이다" 등이 있다. 정말 사랑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어느 선까지의 이해, 아니 인/내/가 가능한 것일까? 과연 사랑과 간섭, 믿음과 폭력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데이트성폭력은 이러한 경계선 상에 위치해 있어서 쉽사리 담론화가 되지 않는다. 그 중 데이트강간은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말한다.¹⁴⁾ 즉, 자신이 원하지 않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관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데이트 관계가 자발적이면서 애정이 포함되어 있기에 스킨십은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며, 상대의 성적욕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가해자들은 이를 '사랑'이라고 변명·은폐하고, 남자의 욕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참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억제하지 못하는 성욕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 내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어 성폭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데이트성폭력은 다른 성폭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별권력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데이트성폭력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서로의 동의 아래 연애 관계를 맺었음에도 여성에게는 본인의 성에 관한 가치관이나 행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수동적인 위치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성관념, "성폭력"이란 단어를 쉬쉬하는 사회통념, 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1심 상필 판사)등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한다.

14) 방기연, 성상당과 교육, 원문에는 (여성간의) 데이트 중의 성폭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삭제하였다.

데이트성폭력의 문제에서처럼, 부부성폭력의 문제도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시선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부부성폭력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들어 준 판례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판례 또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부부성폭력을 인정했다.

데이트성폭력은 이성 간의 연애에서 일어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사실 폭력은 모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가능하다. 그런데 동성 간 데이트성폭력은 이성 간 데이트성폭력보다 사회적 관심이 매우 적은 편이다. 동성 간 데이트성폭력에는 동성애와 데이트라는 사적관계,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동성 간 데이트성폭력에서는 이성간 성폭력보다 피해자가 드러나기 어렵다. 동성애 자체가 억압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박탈당하기 전,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 간 데이트성폭력은 신고가 미미한 수준이며, 논의되기도 어렵다. 최근,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 문제가 나름대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를 이성애적 관점으로 바라본다.¹⁵⁾ 그러므로 더욱이 동성애자가 한 개인으로서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연애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모든 성폭력은 동성, 이성, 데이트관계, 부부 간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다. 힘을 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가하는 미시적 폭력이다. 그리고 동시에 특정 성(性)의 폭력을 용인하거나, 혹은 문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는 사회의 배제와 답습,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폭력이다. 따라서 연애 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남성 중심적 사고와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치되는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피해자의 맥락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5) 많은 남성 동성애자 피해자의 경우, 여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성대응으로써 성폭력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지배적이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연애 관계를 기존 이성애처럼 분류하려고도 한다.

<無色인간>/잇을/2008/다큐/10분 7초

성욕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한 무성애자는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유성애중심적인 사회를 무성애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성애자가 낯설고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상경 - 두 여자의 한 여자> /진기/2008/재연다큐/14분 13초

서울에 사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다. 여자친구 얘기도, 서울을 다녀 온다는 얘기도 엄마에겐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열여덟 레즈비언 청소년이다. 한때는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만큼 힘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레즈비언'이란 사실이 나에게도 남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은 오히려 가장 큰 불안과 죄책감의 요소였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엄마에 대해 고민하는 내 모습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레즈비언 정체성을 오직 가족만이 모르고 있는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침묵의 일상 아, 기지개를 켜다'
대구여성영상회 상영작

3월 26일 늦은 6시 30분

포관 B152호

이제, 이화인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나누어보아요.



블링그립찾기

사랑이 달콤하지만 씹새래한 초콜릿의 느낌을 가진다면 **연애**는 훨씬 가벼운 질감의 달달한 솜사탕을 연상케 한다.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핑크빛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둘 이상의 사람이면 언제든 활발히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주제

연애!

그러나, **장애인의 연애**는?

장애인의 연애가 대화의 화제로 떠오르면(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십상...

안녕하세요, 자치단위 물인그림찾기입니다 ~0~

연애라는 주제로 장애라는 영역에 다가서려 할 때,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연애라고 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어딘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먼, 어떤 사람들-그들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분위기랄까...

따라서 이번 자치단위문화제 「지금은, 연애중」에서는 우리가 겪은, 혹은 겪을 수 있는 연애 이야기들로 공감의 장을 넓혀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속의 장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눴고, 연애에 있어서 장애를 부각시키는 사회의 편견,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연애가 어떻게 비추어 지고 있는 지에 대해 담아보려 했습니다.

심오한 연애론이 아닌,
누구나 눈을 반짝이며 들을 수 있는 연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사회, 무성애를 장애로 보는 사회 |

Sommer ☆

예전에 신문에선가 이성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룬 특집 기사를 본 적이 있다. 16) 무성애는 이성애나 동성애, 양성애 등의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 구분 짓는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더 면밀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사전에는 '무성애자: 성적인 욕구가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스스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했기에 한동안 이에 대해 알아보며 혼란해 하기만 하다가 이내 시들해져서는 아무려면 어쩐가,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았었다.

나에게 연애라는 것은 그 이름만 들어도 기지개가 켜질 정도로 따분하고 무료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주제가 '연애'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놈의 연애. 그 연애 얘기는 어딜 가나 안하는 곳이 없네!'하고 투덜거렸을 때 문득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닐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확실히 끊임없이 장애인들을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와 매체 속에서 무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현상은 그야말로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무성애자들을 위한 단체인 '에이븐(AVEN)'은 "현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야 하며, 그 성적 매력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은연중에 규정한다."면서 "그런 사회 속에서 대다수의 무성애자는 자신을 위장하며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종 장애인들은 무성의 존재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이 섹스를 바라다니... 정신상태가 장애구만.' 이것이 바로 무성의 존재로 보

16) 무성애자들을 위한 단체인 '에이븐(AVEN)'에서는 무성애자가 금욕주의자나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하고 성에 눈뜨지 못한 이성애자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불감증과도 다르다.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성적 욕구를 느끼지만 섹스 자체가 즐겁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성애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성애자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이븐의 레비씨는 "무성애자도 사랑에 빠진다. 단지 무성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 無性愛 권리장전... 사랑은 해도 섹스는 싫다. 동아일보 2004.11.11)

는 야만적인 관점이다. (출처 : 장애인 섹스서비스 담론에 부쳐, 작성자 : 푸른 하늘) 실제로 예전에 한 특강에서 장애인 대학생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3가지를 대어 보라는 강사의 질문에 연애를 그 중 하나로 꼽았던 학생이 있었다. 무성애를 장애로 보는 사회와 무성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강요하는 사회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동성애나 양성애, 무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을 성도착증이나 후천적 정신질환 또는 장애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의견은 아주 오랜 과거부터 분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각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 역시 미약하게나마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장애가 아닌가. 아니, 나는 모든 사랑의 형태가 장애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주류와 다른 성적 지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혹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역시 주류가 이해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과 이반의 기준은, 주류와 비주류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사람들이 소위 병신이라던가 변태 등으로 치부하는 그것은 장애에 대한 무개념이다.

장애를 지닌 어떤 이들은 연애를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의 연애에는 많은 장애적 요소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연애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일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는 개개인이 지닌 개성이나 특징 혹은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며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장애 혹은 연애 상대방의 장애, 무엇보다 연애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장애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견지를 지니는 것은 진실로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1 장애, 연애를 걸다 1

한기훈¹⁷⁾ ☆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나의 연애는 처음부터 절망적이었다. 대학 1년 그 시절에, 난 미팅에서 제거되는 슬픔을 맛보았다. 우리 과 아이들이 모 여대 여학생들과 단체 미팅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이라는 녀석들이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다녀 온 것이다. 처음엔 화도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친구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처음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녀석들의 마음도 이해는 됐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친구를 미팅에 데려가고 싶은 1학년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어차피 데려갔어도 제일 먼저 제거되거나 눈총만 받았을 것이다. 연애의 출발은 호감이고 호감의 기본은 외모가 아니던가? 장애인의 연애는 처음부터 외모라는 장벽에 막혀버린다. 이후로도 나의 연애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어느 날 같은 과 여학생이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지 않은가? 나도 몇 번인가 본 피아노를 전공하는 키가 작고 야무진 인상의 귀여운 여학생이었다. 사실 내심 그 여학생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막상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한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나의 장애를 이해해줄지도 두려웠다. 결국 용기가 없던 나는 지금은 공부만 하고 싶고 여자 친구 사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거절을 했다. 그 거절을 후회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난 내 생애 최초의 소개팅이자 유일한 소개팅을 건어찼다는 것을 두고두고 깨달아야 했으니 말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다할 사회경험이 없었던 나는 친구들과 선후배와의 인간관계 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다. 매일매일 실수와 후회를 반복했다. 남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인간관계 맺는 법을 대학생이 되어서야 배우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인간관계 맺는 법을 익히자, 비로소 이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

17) 자유기고가. 휠체어를 사용하여 보행함.

다. 대학에 다니면서 난 세 번의 짝사랑을 했다. 하지만 짝사랑이 그렇듯 나의 사랑은 늘 아픔만을 남겨두고 떠났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을 내 맘속에만 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봐야 한다는 게 나의 인생철학이었으니, 당연히 세 번 모두 고백을 했다. 첫 번째 짝사랑했던 후배에게는 만날 때마다 장미꽃을 선물했고, 마지막으로 짝사랑했던 그녀에게는 매일 같은 시간을 전화를 해서 나의 존재를 알렸다. 하지만 나의 고백에 대한 결과는 세 번 다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대답뿐이었다. 물론 내가 그녀의 타입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의 장애 때문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외모 지상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남들보다 심하게 특이한 외모를 지닌 장애인이 연애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우림의 노래처럼 안경너머의 진실을 보기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 외모, 나이와 같이 외적인 요소가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 장애 뒤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연애로 이어가기란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물론 연애를 가로막는 것이 장애 때문만은 아니다. 장애인의 사회성 결여와 그로 인한 인간적인 매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 될 때도 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성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더욱 가슴 떨리는 일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적기에 작은 친절과 관심에도 가슴이 떨린다. 혹시 그 또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시작하려 한다. 물론 상대 이성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친절이 사랑으로 오해받았으니 말이다. 내가 짝사랑했던 여성들이 모두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나의 연애는 학교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그녀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의 서투름이 문제였다. 데이트나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나는 지나치게 신중했고, 지나치게 긴장했다. 게다가 언제 그녀가 나를 떠나 비장애인 남성에게 마음을 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했다. 나는 늘 초조했고 늘 불안했다. 휴대폰도 삐삐도 없던 그 시절,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메일과 밤에 집으로 전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이메일에 답장이 하루나 이틀 늦어지거나 하면, 난 하루 종일 지옥을 헤매야 했다. 집으로 전화했을 때 늦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밤을 꼴딱 새야 했다. 이러한 나의 초조함은 결국 그녀를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그녀의 하루 일

과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기 원했다. 이러한 나의 불안감이 오히려 그녀를 잃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몇 번의 헤어질 위기를 겪으면서였다.

장애인의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단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만 볼 수는 없다. 난 사랑하는 그녀와 달리기를 할 수도 없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도 할 수 없으며, 산책과 수영도 할 수 없고, 밤늦게 바래다 줄 수도 없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분위기 있는 찻집과 아늑한 곳에 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만 가야 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녀도 쉽지 않았고 나도 쉽지 않았다. 장애인의 연애는 시작도 어렵지만 시작한 뒤에는 더 어려웠다. 연애는 생강과 마늘로 가득 찬 초콜릿 불이었다.

장애, 연애 그 이상을 바라다

연애를 시작하자, 그 다음은 더 고통스러운 욕망이 나를 지배했다. 장애인인 플라토닉 러브만 할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했지만 난 이미 그 이상을 바라고 있었다. 실제로 그녀와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 난 키스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온갖 관련 서적을 탐독해 이론으로는 파악했지만 그러한 이론이 오히려 방해를 했다. 난 이론에 얽매어 실제로는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키스와 섹스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미혼의 남녀가 섹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애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미혼의 장애인의 섹스를 경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엔 클럽과 나이트클럽이 선남선녀의 즉석 만남의 장소가 된다고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나는 아직도 나이트클럽에서 거부를 당한다. 어쩌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와 즉석 만남을 하려는 여성은 아무도 없다. 결국 미혼의 내가 성욕을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위를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내가 섹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나의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을 무성적(無性的) 존재¹⁸⁾로 보는

18) 장애인의 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 장애를 가진 남성을 남성으로 보지 않고, 장애를 가진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개념에서부터. 장애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 권리를 인정하는 않는 개념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도 성욕이 없거나 섹스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심각한 오해마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시선은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언젠가 나를 오래 알아 온 여자 후배는 “선배는 성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요?”라고 묻은 적이 있다. 나의 그녀는 “당신도 섹스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았다. 이처럼 장애인도 섹스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장애인과의 연애를 가로막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장애인은 참 난처해진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래 나도 할 수 있어요”라고 아이 캔 두 잇(I Can Do It)을 외쳐야 하나? “난 잘 해요”라고 자랑을 해야 하나? 어떤 경우이든 참 우스운 일 아닌가? 세상의 누가 자신의 섹스 능력이 아닌 섹스 가능성을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해야 한단 말인가?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을 말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도 늘었고, 그에 따라 장애인을 만나고 장애인과 연애를 하는 일도 많아졌다. 하지만 내가 연애를 하며 고민했던 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포기할 것인가?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에 그 좋은걸 왜?”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호맛함,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의 짜릿함,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두근거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껴보고 싶다면 연애를 하라. 내가 바라던 것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고, 내가 제일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면 연애를 하라. 당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던 당당하게 연애를 걸라. 연애는 먼저 거는 사람의 몫이다!

| 내 연애 이야기 |

하나, 김쌍 이야기 ☆

작년 어느 추운 날 제대로 된 연애 해보고 싶었던 나에게 가슴 깊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랑이 다가왔다. 지금은 깊어질 만큼 깊은 사이가 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작고 사소한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는 초면이거나 익숙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 간혹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처음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편인데, 이 어려움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사귀기 전,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가 말한 문장 혹은 단어를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내가 “뭐라고?”라고 다시 되물으면 그는 다시 말해주지만 간혹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경우, 상대방은 장난 섞인 짜증을 부리면서 결국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 가곤 했다.

“다시 한 번 말해줘”

내가 그에게 자주 썼던 한마디, 지겹기도 한편으론 내가 말할 가치조차 못 느껴 그냥 알아듣는 척 하고 넘어갔던 적이 많았다. 하지만 나의 이 ‘척’을 알아차렸는데 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까지는 눈치 채지 못하고 내가 대화에 관심이 없어서 무성의하게 반응한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 그 때문에 난 그와 만단정화(萬端情話)는 커녕 별다른 대화 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하루를 같이 보냈던 적도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어느 누구든 잘 못들을 때가 있듯이 나 역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느꼈고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적었기에 그에게 굳이 장애를 말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 솔직히 오히려 말함으로써 인식의 변화가 두려웠던 건 사실이었다. 인식의 변화, 즉 전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대한다는 건 내게는 더 거리감으로 다가오게 될까봐, 아무래도 이해심 많은 사람이래도 지나치게 배려하는 모습조차 오히려 고마움보다 부담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늘 조심스럽다.

보통 주변 연인의 경우, 매일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나 역시 전화통화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말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아 자주 대화의 흐름이 끊어지곤 한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중간에 끊고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활성화 된 요즘, 우리 커플은 그 어느 커플보다도 이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요즘 영상통화 핸드폰의 경우, 시각적인 즐거움은 크더라도 음질이 좋지 않아서 영상통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은 적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 중 하나로 꼽는 영화 관람, 우리 커플도 여느 연인들처럼 자주 영화관을 찾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영화 같은 경우 자막이 없어 대화 캐치하기가 힘들다. 스크린을 아무리 주시해도 내용을 유추하기 힘들 때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느꼈을 때가 많았다.

식사를 할 때나 카페에서 대화할 때 마주보며 앉지 않고 늘 항상 옆에 붙어 앉다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의 옆으로 가서 앉게 되고 그 또한 나를 옆에 앉히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거 같다. 그렇게 사귀면서 느낀 건 우리 사이에 장애는 연애편제 의 장애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아닌 연애의 일부분처럼 서로가 맞춰나가는 단계 중 한 단계일 뿐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한다.

둘, 하이퍼 이야기 ☆

나와 남자친구는 오늘로 4개월째 열애(烈愛) 중이다. 우리의 연애는 여느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다. 각자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연애에도 푸욱 빠져서 서로를 아끼며 지낸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표시된 '복지카드'를 보면 쓰여 있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일으키며 그와 나를 분류하는 듯하지만 그저 그것 이외에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이라는

말과 비장애인이라는 말에서 가져오는 이질감은,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말의 '장.애.'는 참 무색하다.

그럼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장애인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 어떠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특별추억 하나!

그 때만이.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장애인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장애인이니 좋네~ 할인도 받고 말이야!" 라 생각한다. '(카드를) 맘껏 누리라!!' 라는 광고 카피가 떠오른다. 이렇게 우리는 남달리 문화감상, 교통수단 이용할 때 특별대우를 받는다.

특별추억 둘!

주변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여느 20대 초반 남성들에게 흔히 가볍게 묻듯 "곧 군대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여자친구인 내가 다소 당황한 만큼 그도 그저 아무렇지 않지는 않았을 터. 나는 사실 그 날 그보다 더 당황했었다. 헌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상황과 연결 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강박증에다가 완벽주의자라서 타인을 힘들게 한다."는 말 즉, 나의 약점이자 흠점이 공개되었을 때 느낀 당황감과 비슷했다. 이건 각자의 콤플렉스일 수는 있지만, 그와 나 사이의 장애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사이에 별 장애 없어요~ ^^"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장애의 정도 즉, 대개 연애생활을 영위하기에 "기능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연애주체가 느끼는 만족 혹은 행복도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점에 그대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래 어쩌면 장애의 정도에 따른 현상차이로 인해 즉, "의사소통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느냐, 함께 갈 곳을 정할 때 편의시설을 고려해야하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서 그들의 연애생활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을 달리 예측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애는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은 어쩌면 연애하는 그 연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거나

뇌성마비가 심한 오빠를 활동보조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같이 갈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일일이 내가 밥을 먹여주고 해야 해서 많이 불편했거든. 그리고 한마디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의사소통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의 장애가 심한 경우라면 장애도 고려조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한 단계를 넘어서 한다면,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한다는 학자도 많잖아. 왜냐하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과 연애했을 때 상대방을 대 할 때 '그게 참...' . 그래서 그게 참 힘든 상황의 장애를 내 친구(소셜)을 보았을 때 장애를 가진 친구들 속 소셜이 가장 심하게 난감한 친구였던 장애를 가진 친구를 보고, '아, 난 친구' .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참 열려져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적 시선...

사회적인 시선 문제도 있는 것 같아. TV에서 보면, 인간극장 같은 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애에 대해서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이, 물론 말이야 둘이 좋아하면 시선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장애인이 대단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

사람, 나도 대단하다고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한 거 보자.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장애를 가진 나의...

좀 더 나은 생활 하려 장애인의 상황하고 하면 자신과 겹쳐진 것인데, 내가 장애가 있는데 연애했을 때 상대방이 보지 못하게 할까? 내 장애를 보지 못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 때문에 연애에 대한 완성을 많이 해도, 그래서 연애했을 때 '아, 아, 아' 하는 것, 수고 많았어, 슬퍼하지 마라, 영영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 연애했을 때 생각도 할까? 꼭 애가 오기까지 그게 그냥 친구하고 생각될 때도 있었어.

끝내며...

어... 전 사실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솔직히 이 자리, 지루하기도 했는데요. 음.. 뭐라 할까..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한 애기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내 편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와 '연애'라니까, 뭔가 특별한 애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 모든 연애의 형태는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물론 각각의 연애가 개개인한테 특별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다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

연애 많은 사람과 그 사람 자체가 나를 포함한 사람은 생각이 많았어. 연애 많은 사람은 단점도 많지만 재능도 나에게 영동지 않아. 이걸 보면서 애 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양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연애의 형태와 좋은 사람 다양한 듯.

연애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 동성애나 단순한 전제연애라는 연애를 할 수 없는 거야?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중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한 트랜스젠더 작가와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다. 우리들은 트랜스젠더라는 말 하나로 모두들 큰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약속장소로 향했으나, 우리가 만난 사람은 너무도 평범한 단지 키가 조금 큰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두 시간 남짓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문득 이 느낌이 떠올랐다. 뭔가 다를 거라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꺼리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 속의 기대. 그리고 정작 만남은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그저 그런 일상, 평범함. 장애인의 연애로 뭔가 진솔한, 늘 그렇고 그런 결론이 싫어 뭔가 가장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글을 써보고자 했던 결심들은 어쩌면 결국은 편견으로 무장한 채 장애 인권을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2008년 이화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학생문화관 427호
searcheye2003@hanmail.net